

◇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외과적 치료:술후 결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

장윤희, 진웅, 박재길, 이선희, 김세화, 광문섭

가톨릭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배경 및 목적 : 흉선절제술은 중등도에서 중증 근 무력증 환자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선택되어지고 있는 치료이다.내과적 치료와 병행된 흉선절제술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,술후 결과에 미치는 임상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.

방법 : 1989,1 부터 1998,1까지의 35명[남자17,여자18]을 대상으로 하였다.중증근무력증의 임상단계는 변형된 Osserman의 분류방법에 근거하여,증상을 술전,술후 2 개월,6 개월,12 개월,36 개월에 평가하였다.수술효과는 흉선종 경과 비 흉선종 군으로 나누어 각 시점마다의 관해율 [완전관해 약물관해]과 완화율 [완전관해 약물관해 호전]을 평가하였다.흉선절제술후 증상에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하여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.1. 수술 당시의 나이 2. 성별 3. 수술전 증상의 지속기간 [초기증상 및 IIA 이상의 증상] 4. 수술전 임상단계 [초기의 임상단계 및 수술직전의 임상단계] 5. 조직학적 분류 6. 수술방법 7. 술전 혈장교환술의 시행여부 8. 술전 스테로이드의 복용 여부

결과 : 비흉선종의 관해율은 4% [2 개월],16% [6 개월],34%[12 개월],62% [36 개월]이었다.흉선종의 관해율은 0%[2 개월],18% [6개월],10% [12 개월],60% [36 개월].흉선종의 유무는 관해율에 있어서 수치상의 차이는 보였지만 통계적 의의를 보이지 않았고,남자일 경우와,37 세 이상인 경우,IIA 이상의 증상이 생긴 이후 수술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해율을 보였다.

결론 :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수술적 치료에 좋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인자로서,1.남자2.37세 이상 3.IIA 이상의 증상 지속기간이 2 개월이하인 경우에서 통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. 하지만 의무기록에 의거한 외래추적관찰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집단의 규모가 축소되어 사실상 의미있을 요인들이 통계적의의를 상실하게 되었음이 추측된다.

책임저자:장윤희(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흉부외과학교실)
발표자:장윤희(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흉부외과학교실)